

세계가 주목한 나주 어린이들 하모니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국제합창제서 청소년 3위

국내팀 중 유일하게 3위내 입상

21일 켄텍 대강당서 정기연주회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세계 무대에 감동을 선사하며 문화예술 도시 위상을 높였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부산국제합창제에서 청소년 부문 3위와 금상을 수상했다. 부산국제합창제는 국내외 합창단이 참가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 대표로 참가해 섬세한 화음과 풍부한 감성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창설된 이 대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았으며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5개국 56개 팀, 2071명이 참가했다. 그중 해외 12개 팀과 국내 7개 팀이 공연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심사위원단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음악대학의 지젤 와이어스 교수를 위원장으로 라트비아 작곡가 에리크 에센발츠, 인도네시아 지휘자 토미안토 칸디사푸트라, 한국의 민인기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등이 참여해 대회의 권위를 높였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 판타지아',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21회 부산국제합창제 공연 모습.

〈나주시 제공〉

‘두껍이’, ‘치키 차가 초코 츄’ 등 한국 창작 합창곡을 완성도 높게 선보였다. 나주배를 상징하는 금빛 한복을 입은 단원들은 국악기와 어우러진 한국적 연출로 무대를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번 수상은 올해 부산 영화의전당과 벅스코 등에서 열린 경연 전체 부문 중 유일하게 국내 팀이 3위 안에 입상한 사례로 세계 합창인들의 주목받았다. 박의영 예술감독은 “순수 한국 창작곡으로만 구성된 무대로 국제무대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라며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한국 합창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나주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부산국제합창제 무대를 시민들에게 재현하며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선사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짧은 연습 기간에도 단원 모두가 열정과 팀워크로 멋진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내년 상수도 확충 3건 142억원 확보

담양군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수도물 공급을 위해 내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1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 현재 담양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다.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 고갈과 수질 불량

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올해 설계를 마친 창평면 유곡리·용수리 일대 상수도 공급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신계정수장 확충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주요 식수원인 신계저수지 확충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누구나 깨끗한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수도 확충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객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어린이 공연 매달 ‘매진’

‘상상더하기’ 가족 뮤지컬 등 인기

장성군의 어린이 기획 공연 ‘상상더하기’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장성군은 2023년부터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상더하기’ 공연을 기획, 장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상 어린이 공연이 많지 않고, 아이를 둔 가정의 값비싼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올해만 총 8편의 어린이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지난 3월 가족 뮤지컬 ‘라퐼젤’을 시작으로 ‘어른동생’, ‘두들팝’, ‘우리 가족’ 등 매달 공연이 이어졌으며 다음 달 13일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뮤지컬 ‘산타와 루돌프’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광주, 나주, 함평, 담양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장성을 찾는 관객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 상가 이용도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연 인기에 힘입어 예매 시작 당일 매진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장성군민을 위해 티켓의 20%를 현장 예매분으로 남겨두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는 화순입니다’ 프로젝트 성료…10개팀 1박2일 화순 여행

이름·지명 인연 참가자 모집

운주문화축제·적벽 탐방 등 체험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나는 화순입니다’ 프로젝트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2화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름과 지명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통해 화순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군 13개 읍·면의 지명이 이름에 포함된 사람들을 모집, 화순에서 1박 2일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참여형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보이며 시작된 ‘나는 화순입니다’ 프로젝트는 총 2화차로 진행돼 회차당 5팀을 선정했다. 지난 달 17일~18일 진행된 1화차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화순 하니움 군민의 날 행사 ▲불꽃놀이 및 축하공연 ▲화순적벽 탐방 등, 가을빛으로 물든 화순의 풍경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2화차 프로그램에서는 ▲신비로운 사찰 운주사에서 열린 ‘화순운주문화축제’ ▲개미산 전망대 야경 감상 ▲꽃



‘나는 화순입니다’ 프로젝트 2화차 참여자들이 화순운주문화축제를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길 음악분수 관람 ▲화순적벽 자유여행 코스 체험 등 여정이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이름이 인연이 돼 화순을 직접 여행하게 돼 특별했다”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했다”라고 말했다. 구종현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름으로 이어진 인연이 화순을 기억하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6억원 투입 가로·보안등 개선 착수

강진군이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가로·보안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 478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128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왔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에 선정돼 11월 중에 착공한다. 사업 대상지는 성전면 시가지, 월평교차로, 강진역 인근, 청자촌, 도암면, 작천면 등 주요 생활도로 9개 구간이다.

이 사업은 교차로·곡선 구간 등 사고 취약지역과 시가지·이면도로의 조도가 낮아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 불편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명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특히 양방향 스마트 점멸기와 디밍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특집

여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11월호

2025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개관 10주년 ACC 아시아 콘텐츠 히어로 성장 중

- ACC 10년의 성과와 과제
- ACC 창·제작스튜디오는 지금
- 국제적 전시 역량 확인한 ACC 10주년 특별전

A I C I C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남도 채널로드

나주

오래된 도시
마한·조선 시간여행
역사 숨쉬는 땅

문화는 품은 건축물

대구간송미술관

자연과 전통의 교감
돋보이는 건축미학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⑤

소치 묵화에서 본 호남 남화의 남도성

호남의 누정시조2⑥-장성 청계정
고절한 선비 정신 담은
돌출한 정자

예향과 함께하는남도투어③

맛이 익어가는 가을남도 미식 여행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③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계 유일 디자인 복합문화공간

문화 화제

할아버지 아들 손자, 80일간의 여정 자동차로 유라시아 '송송송 가족여행'

왕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④
뉴욕서 피카소 그림 본 화가 윤중식
"빨리 짐싸, 서울 가 그림 그리게"

공연 화제

광주버스킹윌드콘

세계 거리 뮤지션들의 에너지 가득
5일간의 글로벌 쇼케이스형 축제